

CNI 세미나 2024-94

로컬크리에이션 연구회
-제2차 세미나 및 현장탐방-

로컬크리에이션 연구회

-제2차 세미나 및 현장탐방-

■ 배경 및 목적

- 자본주의 생활양식 심화 등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, 지역기반 생활시스템의 소외현상, 이로 인한 지역소멸이 강화되고 있음
- 이러한 문제에 대항하는 다양한 지역적 시도가 있음. 이러한 맹아적 시도(niche)는 기술·사회시스템 전환으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, 따라서 우리와 같은 지역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과 시도에 대해 기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
- 구시가지의 먹거리 인프라의 현재와 미래를 식문화 전문가*과 같이 이야기하고, 같이 걷고, 식사를 나누면서 경험하고 시사점 발견

■ 세미나 개요

1. 일 시 : 2024. 11. 5. (화) 10:30~
2. 장 소 : 서울역회의실 소공간 3층 및 중림동 일대
3. 주 제 : 지역의 오래된 식문화의 현재와 오늘
4. 참석대상 : (발제) 정은정 박사(사회학자), 대한민국 치킨전 저자

(종합토론) 박춘섭 책임연구원

김강현 연구위원

차정우 연구원

홍은일 연구원

임다정 연구원

목소리 연구원

■ 시간계획

소요시간		주요내용	비 고
부터	까지		
10:30	12:00	세미나	정은정 박사 발제
12:00	12:30	이동	도보
12:30	13:30	중식	
13:30	15:00	중림동 성요셉아파트 골목투어	
15:00	15:30	이동	도보
15:30	16:30	청년예술청 탐방	
16:30	~	귀가	

목차

I. 먹고 기록하고 안내하라 -서울의 음식, 음식의 서울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. 종합 토론	19
-----------	----

I

먹고 기록하고 안내하라 - 서울의 음식, 음식의 서울

정은정 농촌사회학연구자(대한민국 치킨전 저자)

먹고 기록하고 안내하라 -서울의 음식 음식의 서울



정은정 농촌사회학연구자
avis96@empas.com

신선로에서 설렁탕까지



냉면과 불고기, 그리고 가든문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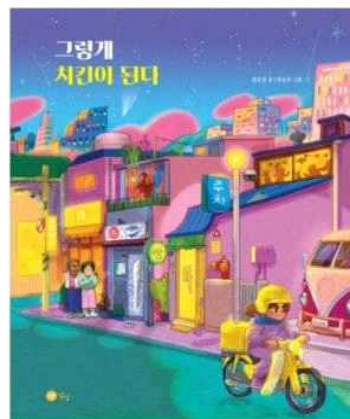
청진옥의 국밥



내가 먹은 서울 음식



치킨으로 펼쳐 본 삶과 사회



K치킨에 한국이 보인다



글로벌푸드와 개방농정의 그늘



그 많던 농민들은 어디로 갔을까?

농업인구(농민) - 200만명 (65세 이상 45%)

자영업자 - 750만명

먹는 장사는 많은데 왜 농업은 붕괴했을까?



고향을 버려야 버틴다



간판으로만 남은 나의 고향

이촌향도의 물결을 따라 대도시로 떠나온 사람들은 대체 어 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했다.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, 보너 스도 분기별로 지급되고, 무엇보다 직장보험이 되는 그런 일자 리는 늘 부족했다.

이들은 자영업자가 되었거나,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여전히 전전, 아니 전전긍긍하고 있다. 1984 년 포장마차의 주인들을 연구한 사회학 논문에서 보면 당시 농 촌에서 떠나온 농민들이 주변적이며 비공식 부분의 경제활동인 '포장마차'와 같은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. 제대로 된 임금노동 부문에 합류하지 못하고 '비임금근로자'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삶을 농촌 사람들이 살았다. 공교롭게도 농민들도 직업 분류상 자영업자이다.



청년문화라고요? 통닭과 생맥주



미싱은 돌고 도는데



이모 여기요!



누구에게나 가슴에
떡볶이집 한 곳은 품고 있다



희어멀건한 그 시절



빨간 맛의 세계



우뚝 선 삶의 서사



달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덜덜덜 -뒷골목의 음식들



우리들의 떡볶이와 김치전



돼지불백과 토마토가 얹어진 냉면



서울로 떠난 이주민들의 음식



K푸드, 짜장면과 짬뽕



흐르는 음식 머무는 음식



한국인의 밥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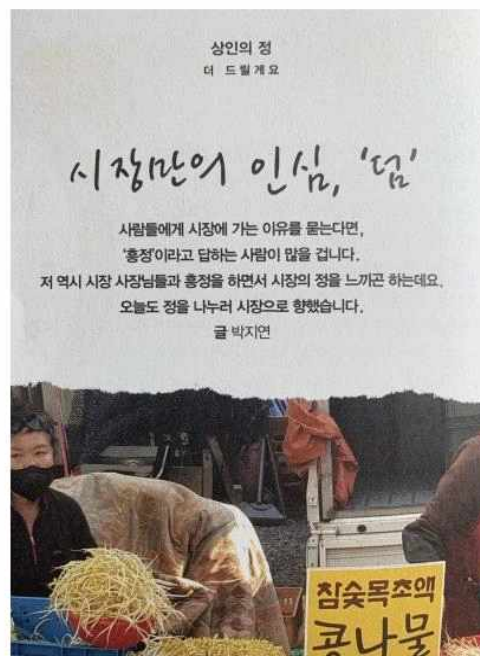
누가 내 통닭을 옮겼을까



서사가 있는 골목과 프랜차이즈



누군가의 인생을 에누리하는 서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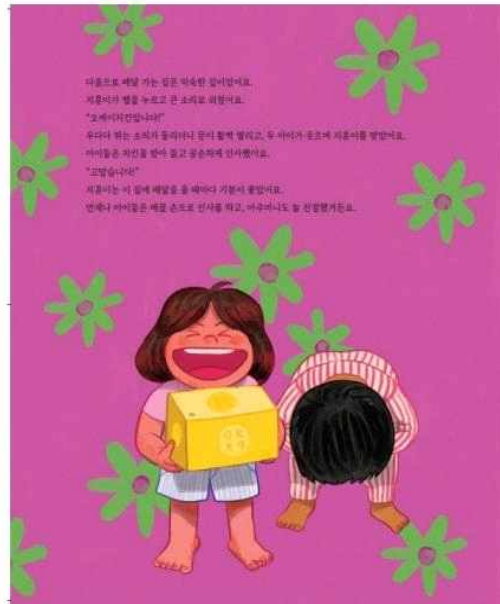
지역재생에 대한 이해와 오해



새벽 두 시의 믹스커피



치킨이 온다 사람이 온다



II

종합토론

[illegible]

[illegible]